

## 비비브를 이용한 질이완증 치료

리더스피부과 장 경 애

질이완증, 혹은 질 성형술 등은 아직까지는 산부인과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이다. 질의 탄력이 떨어진 경우 질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거나 프랙셔널 레이저 시술을 받거나 혹은 이완된 부위를 자르고 봉합하는 수술, 혹은 링을 끼우는 시술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부과적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분야일 뿐 더러 관심을 주지 않았던 분야이다. 또한 기존의 이러한 시술들은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더욱 접근이 힘들었던 측면이 있다.

### 도입 배경

2016년 3월 ASLMS에 참석했을 때 미국 피부과 의사의 질이완증 개선에 효과가 좋다는 고주파 기기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환자분들이나 지인 중 피부과 의사인 필자에게 얼굴이나 바다 리프팅처럼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리프팅 시술은 없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고 들었다. 강의에 따르면 시술도 쉽고 시술시 통증이 없고 효과가 좋다고 했다. 그래서 국내에도 들어와있는지 알아보던 차에 조이 엠지사를 통해 비비브라는 기기를 소개받아 병원에 들여오게 되었다.

이후 질성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라 생각되는 서양에서도 성에 대한 불만족에 대해 말하지 않고 참고 지내는 여성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이다. 부끄럽거나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성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는 여성들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심지어는 우울증으로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여성의 질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질식 분만을 하게 되면 콜라겐이 이완되거나 끊어지게 된다. 손상된 콜라겐은 재생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출산 후 본인 혹은 배우자의 성감이

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것을 질환으로 여기지 않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거나 그러려니 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얼굴의 탄력이 선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출산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의 경우에도 원래 질 부위의 탄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 비비브의 원리

비비브는 써마지와 같은 주파수인 6 MHz를 이용해서 이 주파수를 조직에 조사한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저항과 이때 발생하는 열로 조직의 재생과 타이트닝을 유발하게 된다. 조사시 질 상피표면은 온도가 4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쿨링하면서 질 점막하 3-5 mm까지의 깊이에 고주파를 전달해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50℃ 이상으로 만든다.

Vos 등은 양의 질을 이용한 동물 임상에서 fibroblast의 작용을 최대한 유도하는 동시에 안전하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Millheiser 등은 24명의 여성(25-44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시술 후 부작용은 모두 없었고, 1달 후 환자들의 67%, 6개월 후 87%가 질 탄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일본 여성 30명(21-52살)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논문도 있는데 (Sekiguchi 등) 시술 후 성기능은 향상되고 성교시 통증은 줄었으며 효과는 12개월간 지속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부작용은 없었다. 비비브는 써마지와 원리가 같듯이 시술도 1년에 한번 할 것을 권한다.

### 실제 임상 경험

필자는 환자들에게 비비브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비비브는 써마지처럼 고주파가 질 조직의 콜라겐 생성을 일으키고 콜라겐 쿠

선의 재배치를 통해 점막이 타이팅되면서 그 부위에 쿠션 효과도 생겨서 도톰하게 만들어 준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주파나 레이저 시술은 피부과 의사가 경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노하우를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성감대 증진을 원하지만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분들은 대화를 요실금 쪽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 (1) 비비브의 장점

특별한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로 통증이 없고, 시술은 써마지처럼 쉽고, 시술 시간은 25분이면 끝난다. 비비브를 도입한 이후 필자가 시술한 환자들의 결과 데이터를 보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1. 본인의 성감이 좋아졌다.
2. 남편 혹은 애인이 좋아한다.
3. 출산 후 생긴 요실금이 좋아졌다.

순이고 그 외에 시술 후 일상 생활이 지장을 받지 않아 좋다. 질 방귀가 없어졌다, 등이다. 처음에는 요실금도 좋아진다는 결과를 보고 4-50대가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20, 30대 미혼 여성들, 혹은 결혼이나 재혼을 앞둔 여성분들도 찾는 시술이 되었다. 그러나 활발하게 많이 하는 시술은 아니다. 왜냐하면,

### (2) 비비브의 단점

1. 생각보다 needs가 적었다. 먼저, sex-less 부부가 많았다. 평소 다니던 환자분들께 비비브를 소개하면 손잡고 자기도 힘들다고 하는 부부가 많았다. 또한, 비록 여자 피부과 의사이지만, 피부과 의사와 부부의 성에 관해 대화를 나누기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었다.
2. 그러므로 남자 피부과 원장님과는 더욱 상담 받거나 시술 받기를 꺼려할 것 같다.
3. 질점막이 건조한 폐경기 이후의 환자들에 대한 효과가 다른 기기보다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고, 질 외부 교정(소음순과 대음순의 혈색이나 탄력교정)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최근에는 비비브로도 호전을 보였다는 임상 결과도 보고되고 있기는 하다).

###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비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잠재된 고객들이 꽤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자녀를 낳은 딸에게 시술시켜주는 친정 어머니들이 있으셨고, 요실금이 좋아졌다는 친구의 말에 따라 하는 다른 친구분들이 단체로 오기도 했다. 중국 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의원의 경우라면 더 이슈가 될 수 있다(일본의 경우에는 2-3년 전부터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 주로 받는 시술비보다 일본이 더 싸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진 않는다). 또 하나의 장점은 콤플레인 건수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요즘은 언론매체 등을 보면 가려져있던 성문화가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비비브와 같은 비침습적인 성기능 개선 시술들이, 현재 포화 상태에 달한 미용 시장에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1. Vos JA, Livengood RH, Jessop M, et al. Non-ablative hyperthermic mesenchymal regeneration: A proposed mechanism of action based on the Viveve™ model. Proc. of SPIE Vol. 7901.
2. Millheiser LS, Pauls RN, Herbst SJ, et al. Radiofrequency treatment of vaginal laxity after vaginal delivery: Nonsurgical vaginal tightening. J Sex Med 2010;7:3088-3095.
3. Sekiguchi Y, Utsugisawa Y, Azekosi Y, et al. Laxity of the vaginal introitus after childbirth: Nonsurgical outpatient procedure for vaginal tissue restoration and improved sexual satisfaction using low-energy radiofrequency thermal therapy. J Womens Health 2013;22:775-781.
4. Krychman M, Rowan CG, Allan BB, et al. Effect of single-treatment, surface-cooled radiofrequency therapy on vaginal laxity and female sexual function: The Viveve I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 Sex Med 2017;14:215-225.

대한피부

## Q&A 질문을 받습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지를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호 회지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질문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해드립니다.  
\*질문자는 익명처리됩니다. \*보내주시는 질문은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대한피부과의사회 간행위원회](http://대한피부과의사회간행위원회) E-mail, [admin@akd.or.kr](mailto:admin@akd.or.kr)